

## 뉴스제휴평가위원회, 2020 년 뉴스 제휴 평가 일정 확정

2020-08-21

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'네이버·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'(이하 심의위원회)가 코로나 19 로 연기되었던 전원회의를 열어 2020 년 계획을 확정했다. 이번 회의를 통해 ▲2020 년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, ▲'기제휴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', '자동생성기사 제재' 등을 다룰 TF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.

### 2020 년 뉴스 제휴 평가 24 일 접수 시작

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심사를 규정에 따라 뉴스콘텐츠, 뉴스스탠드,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 년 이(2)회 실시하였으나, 코로나 19 로 2020 년에는 일(1)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 했다.

이번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08 월 24 일(월) 00 시부터 09 월 06 일(일) 24 시까지 2 주간 진행되며,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.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 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. 심사기간은 최소 4 주, 최장 10 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신청 자격은 ▲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·허가를 받은 후 일(1)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된 이후 일(1)년이 지난 매체다. 뉴스콘텐츠 제휴는 '포털사'에 '뉴스검색제휴'로 등록된 후 6 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, 뉴스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. 단,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%(순위)에 해당하고, 칠십오(75)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'뉴스콘텐츠제휴' 심사에 신청 가능하다.

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 점 이상, 뉴스스탠드제휴는 70 점 이상, 뉴스콘텐츠제휴는 80 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.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, 자체 기사 비율, 윤리적 실천 의지의 '정량 평가(20%)'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, 윤리적 요소,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'정성 평가(80%)'로 진행한다. 1 개 매체당 최소 9 명의 위원이 실시하고,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.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.

## 세부 TF 구성 통해 평가 시스템 개선 논의 지속

심의위원회는 지난 4 기의 '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' 구성 권고에 따라 TF 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. 이 외 '지역매체 입점 혜택 TF', '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 TF'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. 특히, 자동생성기사(로봇기사)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'자동생성기사 TF'를 다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.

한편,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7 월 전원회의를 통해 5 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.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성겸 위원(한국신문협회 추천)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. 1 소위 위원장은 김기현 위원(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), 2 소위 위원장은 김동민 위원(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추천)으로 각각 정해졌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, 주재하며, 회의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5 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성겸 위원장은 "코로나 19 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, 뉴스제휴평가위가 진행하는 1 차 입점 평가도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"며 "앞으로도 코로나 19 의 확산세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, 기간 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[끝]